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30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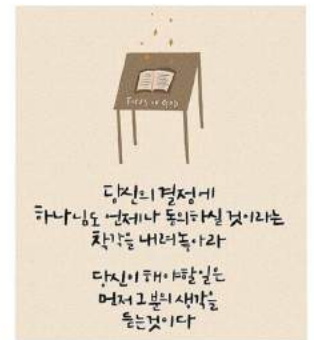
www.churchofservant.com

나눔의 달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 감사 주일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J E S U S L O V E S Y O U

기쁨, 화평, 나눔

December 23, 2018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지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오정은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태복음 2:9-11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116장 / 동방에서 박사들 (통일찬송가 116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유덕하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125장 천사들의 노래기 (통일찬송가 125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용서

용서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억지로 잊거나 묵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에서 지워 버리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을 지우는 일입니다.

용서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용서는 조건이 없는 것이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의 모범을 보여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형제의 아픔을, 형제의 잘못을 깨끗이 잊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용서의 자리에다 사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의 기도

"지금까지 나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어둠의 관성이 내게 있습니다.
성탄의 그리스도께서 낫아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심을 돌아보며
이제는 진심으로 겸손해지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EM PASTOR
- CHILDREN'S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 YOUTH MINISTER SAGAR 전도사



"어린아이의 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짐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짐이 아니라"

금요 찬양 예배

8:00 pm

기도 : 최내권 집사
말씀 : 김성배 목사 / 출애굽기 1:1-22
하나님의 은혜

교회와사역

렘브란트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목자들(1646)>

이 그림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목자들의 벽찬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다.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 있고 그 곁을 마리아와 요셉이 지키고 있으며, 그 앞에 목자 한 사람이 나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아 기도한다. 아기 예수의 발꿈치에서 지팡이를 들고 감격에 젖은 목자. 그리고 호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들어 기도하는 목자 등이 눈에 띈다. 또 화면 오른쪽 귀퉁이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어린 아이,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여인들도 그림의 분위기를 한층 생동감 있게 만든다. 화면 뒤편의 여물을 먹는 말, 널빤지를 이어붙인 벽면과 사다리, 지붕 등은 이곳이 허름한 마굿간임을 알려준다.

한 줄기 빛이 아기 예수에게 비춘다. 돌연 주위가 환해지며 사람들의 표정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목자들의 표정이 살아난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목자들의 기쁨과 감격이 깃들어 있다. 조촐하지만 진실되고, 꾸밈없지만 진정한 예배가 드러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걸치레의 예배가 아니라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의 순간을 날같이 들여다볼 수 있다.

렘브란트가 목자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진 못했지만 아마 그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다. 그들의 입술을 보라. 감사와 기쁨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쉴 틈이 없는 것 같지 않은가.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토로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 두근거렸을 것이고 혈관마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마구 고동쳤을 것이다.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먼 길을 지체없이 달려왔다.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것'으로 인해, 또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본 사실'로 인해, 그리고 자기들이 듣던 바대로 아기가 강보에 싸여 있음을 '안 것'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인생 최대의 사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

렘브란트가 그리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사실의 기록만이 아니다. '성화'라는 장르를 남기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가 의도한 것은 그리스도께 드러지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 그리스도께 우리가 취해야 할 바가 '경배'요 '찬양'임을 알려주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마굿간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경배의 자세를 취한다. 그들의 표정과 자세에는 아기 예수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 호기심과 두려움이 실려 있다. 그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마음이 실려 있고, 하늘과 땅의 주재께 조용히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로새겨져 있다. - 서성복 (안동대 미술학과 교수)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12월은 "나눔의 달"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이며 성탄감사주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오셨던 구주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2.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선교와 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3. 결산과 예산의 시기입니다. 각 위원회와 사역팀은 2018년 사역들을 점검하며 결산하십시오. 그리고 2019년 사역을 계획해 주십시오.
4. 연말연시 교회 행사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십시오.
12/24 성탄축하예배 / 주일학교 & Youth 성탄 발표회
12/31 송구영신예배 / 성찬예식 / 연말 Oikos 셀모임
신년특별 새벽기도(1/2-1/12, 주중 6시 & 토요일 7시)
5. 예결산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장: 구민 / 위원: 김훈태, 오정은, 정줄리, 최선운
6. 17주간 성경 일독운동이 Oikos 사역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오늘까지의 진도를 최선운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웃, 친구,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천국복음을 전하며, 감사와 풍성한 삶을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누)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섬김이

	12/23	12/30	1/6	1/13
주일예배기도	오정은집사	김훈태집사	정홍렬목사	정줄리권사
금요일예배기도	12/28	1/4	1/11	1/18
	최내권집사	구은강집사	최선운집사	구민 집사
주일헌금위원	12/9	12/16	1/6	1/13
	유덕하집사/최선운집사	구민집사/오정은집사		
주일안내위원	12월		1월	
	김훈태집사		정줄리권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말 말씀요약) **십자가의 도** / 고린도전서 1:18-25

기적을 찾던 유대인들과 지혜를 추구하던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거부했다. 왕으로 군림할 메시야가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처럼 사형 집행틀인 십자가 위에서 죽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이며 영생의 길이었다. 십자가를 통해 죄인이 의인이 되며,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는 진리를 깨닫고 믿는 것이 기적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되는 십자가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다.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부한다. 반면,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 간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생의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저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육체의 연약함이나 가족, 사랑으로 섬겨야 이웃이던 혹은 말은 사명과 교회이던 우리는 십자가를 저야 한다. 그것이 가볍던 무겁던 예수님을 본받아 저야 한다. 인내로 나의 십자가를 끝까지 묵묵히 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야 하는 것이다.

어떤 예를 들 드리겠습니까? / 마태복음 2:9-11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를 드려야 합니까?

황금:

유향:

몰약: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준비되었습니까?

어떤 예를 들 드리겠습니까? / 마태복음 2:9-11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를 통해 성탄의 의미를 다시 살핍니다. 이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각기 특별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황금은 성경에서 왕권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이 됩니다. 또한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들이 쓰는 왕관은 모두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 평강의 왕, 영원한 왕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께 황금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 드려야 할 황금은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황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예물로 드려야겠습니다.

둘째, 유향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향을 만드는 주요 재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았고 하나님께서는 유향을 나의 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유향은 오직 제사장만이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향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그 유향을 직접 받으시기에 합당했고,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유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중보자이시기에 합당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유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향기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므로 자연스럽게 풍겨 나오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께 드려야 합니다.

셋째, 몰약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몰약은 향수나 화장품에 쓰이기도 하였고, 무엇보다 시체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로 쓰였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삶을 참으로 잘 표현하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효력을 가진 완벽한 제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모진 수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신 것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에 몰약이 발라졌습니다. 우리도 낮아져야 합니다. 자아와 욕심 모두를 완전히 죽이는 데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낮아짐이야말로 우리가 예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입니다.

이 시간 예수께 최고의 예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보배함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